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권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제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온 수도권 정책을 중심으로 두 지역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과 한계를 평가하고 상생을 위한 수도권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였다.

-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과 입주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2012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수도권 경쟁력 제고와 수도권 기능과 균형이론의 중요성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수도권에서 지난 해 6.2 지방선거와 10.26 보궐선거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는 개혁적인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특히 시민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도권 지자체나 수도권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지방 소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사실상 활동을 정지한 지